



술 자 리 의 격 의 없
는 가 르 침 과 깐 깐
하 고 엄 격 한 학 자
의 길

이 영 욱

임영방 선생님은 1929년생이시니 올해, 만으로 74세가 되신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하시다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이 1980년 당시 나이 51세 때이고,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아직 내가 대학 4학년이던 23살 때의 일이다. 1992년에는 다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1997년에 퇴임하시고 지금에 이르셨다. 내가 선생님을 뵈기 시작한 이래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워낙 어린 시절부터 연배 차이가 많은 선생님을 뵈지라, 편집자가 요구하는 대로 '옆에서 본 저자' 라는 글을 쓸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저만치 아래서 본 저자' 가 어떨까 싶기도 하다.

여하튼 나름대로 곡절도 없지 않은 지난 24년간의 선생님과의 인연에서 내게 떠오르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학문적 스승' 으로서보다는 '인생의 스승' 으로서가 먼저다. 이 말은 선생님께서 좁은 교실 안에서의 공부가 넓은 세상의 공부와 분

리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교실 밖에서 또한 우리들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말도 된다. 그것도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탁자 가운데 술잔을 놓고 점잖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훈시를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훨씬 적나라하고 직접적이셨다.

선생님과의 술자리하면 나는 우선 두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하나는 '방석집의 추억' 이다. 내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선생님이 즐겨 '방문' 하시는 술집 가운데 하나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명 '방석집' 이라고 불리는 그런 술집이었다. 수업이 끝나 저녁을 하고 나서 "너희들 오늘 팬찮냐" 하는 말씀 뒤에 찾아간 그 술집들은, 당시 학생인 우리들로서는 선생님과의 합석 자리로는 파격 그 자체였다. 집 자체의 성격이 그렇거니와 어울림의 성격도 그랬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생님은 전혀 격의 없이 제자들을 대해 주셨고, 우리로서는 그런 선생님

을 모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방석집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서양미술사와 당대 우리의 황폐하고 착잡한 문화현실에 대해 알게 모르게 폭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의 과천 집이다. 미학과로 옮겨오신 후 곧 이사하신 선생님의 과천 집은 청계산 언덕 반이에 그야말로 정원이 있고 거위가 집을 지키는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한 '그림 같은 집'이었는데, 연초나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제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집 마당의 대추나무에서 나온 대추로 담근 그 술맛이 일품이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역시 그 어울림의 파란만장함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특히 명절 때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모인 제자들이 서로 합석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래서 더욱 에스컬레이트된 술자리 분위기는 꼭 몇 개의 전과戰果를 남기기 일쑤였다. 그런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들이면 누구는 그날 어디서 뻘었으며, 누구는 그날 어찌어찌 되었다는 후일담이 며칠 동안 우리들 사이에 회자되곤 했었다. 그리고 보니 선생님은 참 무던히도 사람들과 제자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의 열정, 그 디오니소스적인 열기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 술자리들이 그저 술자리일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술자리에는 안주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안주로 오르는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선생님께서 겪어오신 여러 형태의 경험담과 다양한 주제를 놓고 벌이는 술자리 토론이었다. 경험담의 경우 한편으로는 유학시절의 외국에서 겪은 경험들로부터 동백림 사건 때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아 이가 모두 빠져버린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접하기 힘든 화단의 이러저러한 비사들까지 그야말로 중황무진인 바에야, 우리들 젊은 제자들로서는 항상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또한 술자리의 토론(뭘 그리 공식적인 토론이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중의 동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이었지만) 역시 선생님의 경험에서 기인한 정확한 식견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식의 것이었다. 언젠간 비록 선생님께서 힘주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신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은 항상 당신의 이런저런 경험들에서 유래한 교훈이 우리들의 생활에 피와 살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선생님을 아는 제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깐깐함과 엄격함 그리고 원칙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격의는 없지만 선생님은 결코 그리 편한 분만은 아니다. 선생님께서 음식이나 술자리의 분위기를 까다롭게 챙기시는 것이나 수업진

행을 위한 여러 원칙들을 엄격하게 유지하시는 것 혹은 제자들이 전시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나름의 사회활동을 하거나 할 때 꼭 고언을 아끼시지 않는 일일까지 모든 일에 대해 건성 건성하시는 일이 없다. 사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야단을 많이 치셨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들 제자들은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부지불식간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선생님 곁으로 다시 모여드는 바에야 어쩔 것인가?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내신 일만 해도 그렇다. 미술품을 퇴직하신 후 선생님은 거의 일체 사회활동을 끊으셨다. 일생 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인 온축蘊蓄을 하나의 성과로 집대성하기 위해 단호함을 보이신 것이다. 미술관장을 퇴임하신 직후에 영국의 코틀트 연구소로 직행하신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는 6년여, 이제 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 나왔다. 제자들로서는 선생님과 그 다채로운 만남 속의 심지를 새롭게 대면하게 된 것이다. 다시금 느끼는 것이지만 선생님을 모시는 일은 쉽지 않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모범을 보이시고는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잘하라 잘하라 격려하시는 분이다. ☞

이 글을 쓴 이영욱은 1957년 서울에서 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현재 전주대 미술학과 교수 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미술평론가로도 활동중이다. 펴낸 책으로 《미술과 진실》(미진사)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현실문화연구)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들》(시각과 언어) 등이 있다.

